

띄어쓰기규정

총칙: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되 글을 읽고 쓰기 편리하게 붙여쓸수 있다.

1항. 토는 앞단어에 붙여쓰며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쓴다.

-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
-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다.
-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,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!
-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!
-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.
-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
- 흠마대를 이고 메고 지고 가는 돌격대원들
-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지낸다.
- 나물을 깨끗이 씻어 말리워 포장하였다.

[붙임 1] 복수로 《-들》의 뒤에 오는 명사는 붙여쓴다.

- 인민들속에서, 학생들사이에
- 그들가운데, 우리들모두가

[붙임 2] 토가 붙은 단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, 행동,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① 둘이상의 단어들이 토를 사이에 두고 녹아붙어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작은아버지, 모내는기계, 늦은가을, 가까운바다, 지난해, 마른국수

② 토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리어 하나의 행동,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.

- 떨어지다, 놀안나다, 급해맞다, 태어나다, 후려치다, 놀고먹다
- 올렸다메다, 들었다놓다, 고았다대다
- 오고가는, 부르고부르는, 크나큰, 기나긴, 넓고도넓은
- 죽을등살등, 앞서거니뒤서거니

③ 토가 붙은 단어들이 하나로 녹아붙어 발음상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왜냐하면, 무엇보다먼저, 죽기내기로, 다름이아니라, 털어놓고말하여, 아니나다를가, 별게아니라, 전에없이, 웬만해가지고는, 날에날마다
- 다시말하여, 여러말할것없이, 의심할바없이, 할수없이, 어쩔수없이, 불행중다행, 뿐만아니라

2항. 품사가 서로 다른 자립적단어는 띄여쓴다.

- 세 어린이가 마당에서 뛰여놀다(수사+명사)
- 안전의 첫째 내용을 토의하다(수사+명사)
- 창공에 우리 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리다(대명사+명사)
- 모든 근로자들이 선진과학기술을 학습하다(관형사+명사)
- 전 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다(관형사+명사)
-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가지다(관형사+명사)
-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되다(부사+동사)
- 동지간의 정을 두터이 하다(부사+동사)
- 단풍이 매우 빨강게 물들다(부사+형용사)

[붙임] 품사가 다른 단어들이 토없이 어울려 하나의 대상, 행동,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전체를 붙여쓴다.

①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하는 둘이상의 단어들에 로가 없이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— 수사와 명사, 부사와 명사, 명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.

- 2중영웅, 1211고지, 1호발전기 [수사+(단위명사)+명사]
- 척척박사, 산들바람, 살짝공(부사+명사)
- 새벽같이, 심장깊이, 기치높이, 주저없이(명사+부사)

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외마디단어들끼리 그리고 외마디단어가 아니라도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.

- 온몸, 각당, 각과, 매해, 매번, 왼손, 새집, 전당
- 오른손, 왼다리, 새신랑, 총지휘자, 옛이야기, 첫머리, 땀가마, 원주민, 별천지, 허튼소리
- 신식민주의, 구시대, 대조선정책, 수수천년
- 어느해, 어느날, 여러달, 여러곳, 어느곳, 어느때, 어느새

②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어명사가 로없이 대명사, 수사의 뒤에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저앞, 그길로, 이가운데, 한곳, 스물아래, 다섯가운데
- 그날, 이달, 그해, 그새, 네해, 두밤, 한동안, 오래동안
- 그전, 세해전, 저년, 두놈, 이녀석, 그다음

③ 앞의 말을 다시 받는다고 할수 있는 《자신, 자체, 전체, 전부, 전원, 일동, 일가...》나 《모두, 스스로》가 대상적 단어뒤에 오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나자신, 그자신, 우리자신, 우리들전체, 그들일가

- 학생들스스로가, 토론자모두를, 그들스스로가, 우리모두는

④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하는 둘이상의 단어들 이 토가 없이 결합하여 하나의 행동,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— 명사뒤에 토없이 동사, 형용사가 직접 결합하여 하나의 행동,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건설하다, 겨냥하다, 나무하다
참되다, 구현되다, 공고발전되다
각성시키다, 분발시키다, 고생시키다
- 값지다, 외지다, 꽃답다, 반짝거리다, 흥겹다, 능청맞다,
힘상긱다, 멋적다, 기쁨어리다
- 꿈꾸다, 춤추다, 재간부리다, 장가가다, 때이르다, 애쓰
다, 인상좋다, 안개끼다
- 앞당기다, 뒤따르다, 곱가다, 겹놓다
- 대줄기갈다, 책임없다

— 일부 부사나 대명사, 수사, 감동사가 고유어로 된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려 하나의 행동,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 쓴다.

- 무엇하다(뵈하다), 이갈다, 그같은, 나보고
- 그만하다, 그러루하다, 엉겨주춤하다, 다되다, 아니되다
- 찢찢매다, 끄떡없다, 설설기다, 덜돼먹다, 바로잡다, 울
리번치다, 끝이듣다, 가로채다, 넵다받다, 드립다대다,
가득차다, 걸써대하다, 똑갈다
- 아차하다, 첫째가다, 하나되다

— 부정부사 《못, 안》이 동사앞에 오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못가다, 안오다, 못먹다

3항. 품사가 같은 단어들에 로없이 어울려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, 상태를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.

1) 같은 명사끼리 로가 없이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학교앞, 처마밑, 인민대중속, 기사장자신, 로동자전체, 학생전원
- 과학양어, 수산혁명, 고온피해, 만병초향기
-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, 부강조국건설, 전민과학기술인재화, 집중강연선전, 알곡생산목표, 벼강화재배방법, 인재관리전략, 최고생산년도
- 평양부근, 아시아지역, 량강도일대, 함흥시주변, 백두산기슭, 아메리카대륙, 오세안주, 조선사람, 쿠바인민, 평양시민
- 초대형유조선, 조선식사회주의, 재해성이상기후, 혁명적조직생활, 학생용가방생산, 고위급회담

[붙임 1] 명사 《전체, 일부, 소수, 극소수, 력대, 해당, 매개, 당대, 각급, 각종, 각계》 등이 명사의 앞에 올 때에는 띄여쓴다.

- 전체 조선인민, 일부 일군, 극소수 착취계급, 력대 통치배들, 해당 단위, 당대 사회, 각급 지도기관, 각종 도구들

[붙임 2] 명사들이 로없이 결합하는 경우라도 단어들에 단계적으로 뜻덩이를 이룰 때에는 뜻덩이단위로 띄여쓴다.

- 사회과학부문 급수사정위원회, 행정경제분야 책임일군, 국토환경보호기관 상반기사업실적
- 황해북도 농촌경리부문 일군들

2) 서로 다른 부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부사로 되거나 같은 부사가 겹치여 잇달릴 때에는 붙여쓴다.

- 더욱더, 더더욱, 좀더, 더한층, 한층더
- 서로서로, 거듭거듭, 모두모두

3) 명사, 부사이외의 같은 품사들끼리 토없이 겹치거나 잇달리여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.

- 누구누구, 이곳저곳, 네것내것(대명사)
- 하나하나, 하나씩하나씩, 서너너덧, 억천만번(수사)
- 오가다, 나들다, 오르내리다, 파헤치다(동사)
- 검붉다, 희맑다, 푸르누렇다(형용사)

4항. 비자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.

1)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쓰며 그뒤의 자립적단어는 띄여쓴다.

- 아는것이 힘이다, 우리의것, 자기것에 대한 사랑, 더할 나위가 없다, 알수 없다, 힘든줄 모르다, 이뿐 아니다, 간편하를뿐 아니라 능률적이다, 그이, 아는 이 없어도, 이분, 뛰여난분
- 그자, 비접한자, 12월결 어느날
-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공고한 평화는 있을수 없다. 그들은 휴식(하l)결 모여앉았다.
- 도내 경제실태, 성원의 출입금지 신의주행 1렬차, 국산제 초음속요격미싸일

[붙임 1] 대상들을 잇거나 리렬하는 《등, 대, 겸》은 앞뒤의 단어와 띄여쓴다.

- 알곡 대 알곡, 부총리 결 농업상

- 사과, 배, 복숭아 등 과일류

[붙임 2] 한자말불완전명사들이 《당, 간, 측, 발, 착, 행, 산, 제, 부》 등이 결합한 뒤에 명사들이 어울려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쓸수 있다.

- 전선행렬차, 평양발렬차, 우리측지역
- 분기간산업계획, 단위당수확고
- 5일부신문, 개성산인삼, 외국제무기

[붙임 3] 불완전명사뒤에 토없이 《하다, 같다(같이), 싶다(싶이)》가 결합하여 그전체가 한덩어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비뜰사한 자세, 알만한 사람
- 아는체하다, 그렇법하다
- 이젠 알것같다, 회의를 하는것같다
- 끝이 없을상싶다, 정신을 차린상싶다, 불성싶다
- 그렇듯싶은감이 들다

2) 단위명사는 수사에 붙여쓰며 뒤에 오는 자립적단어는 띄여쓴다.

- 세개 공병려단, 10여명 돌격대원, 두송이 장미꽃
- 2021년 8월
- 2017년판 《조선말대사전》
- 여러번, 여러가지, 여러꼴레
- 열사람, 스무송이, 한뿔, 마늘 두쪽, 닭알 다섯알

[붙임 1] 다만 《정도, 범위, 가량, 안팎, 이상, 이하, 미만, 나마, 반》 등 수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단위명사 뒤에 붙여쓴다.

- 두어쥬가량의 강냉이, 한달가량의 기간

- 수분이 50%정도 되게, 너비는 15cm정도
- 스무살미만의 청년, 열달나마
- 5kg반, 닭알 두알반

《초, 말, 초엽, 중엽, 말엽, 초순, 상순, 중순, 하순, 전, 후, 이전, 이후, 현재, 동안, 사이》 등 일정한 시기의 구간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우와 같이 처리한다.

- 21세기초엽, 18세기이전, 7월초순 어느날

[붙임 2] 단위명사가 붙은 단위가 뒤에 명사들과 어울려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붙여쓴다.

-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, 70년력사, 80살나이, 3년세월
- 7월5일말씀, 4월22일지시
- 100m달리기, 56kg급경기
- 제11기졸업생들

3)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.

- 가고있다, 가고말다, 짜고들다
- 되어있다, 만들어보다, 살아가다, 견디어내다
- 기뻐하다, 좋아지다, 급해맞다
- 가고싶다, 가는가싶다, 읽는가보다
- 좋을듯하다, 하는듯싶다
- 세워놓고보니까, 되어버리고말았다, 승리하고야만다
- 쓰다나니, 가다나면, 하다보면, 듣고보니
- 보다싶이, 하자마자, 알다마다

5항.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위마다 띄여쓴다.

1)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쓴다.

- 김철식, 리옥금, 김○○, 최아무개, 리모
- 조선로동당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,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, 김책공업종합대학, 대동문식료품상점,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
- 평양326전선공장, 조선4.26만화영화촬영소
-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, 보천보전투, 국제부녀절
- 김일성훈장, 국기훈장, 3월5일기념훈장, 주체사상탑, 만수대의사당

[붙임 1] 고유한 대상의 이름에 토 《의》가 들어있는 경우 그 뒤의 단어는 띄어쓴다.

- 광복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
- 영예의 붉은기칭호, 전사의 영예훈장

[붙임 2] 외국의 고유한 대상이름은 그 나라에서 표기하는대로 띄어쓴다.

-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
- 리오 데 자네이로

2) 고유한 대상의 이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것은 단위마다 띄어쓴다.

- 조선로동당 평양시 강남군위원회
-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, 사회과학원 행정조직국
-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장
-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,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 기념강연회
-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
- 경공업성 일군, 창전소학교 학생

[붙임 1]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명칭을 줄어든 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

- 당중앙위원회(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)
- 강원도당위원회(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)
- 내각총리(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)
- 성일군, 소학교학생

[붙임 2] 시간 또는 위치적개념을 가지고 단계성을 띠면서 열거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.

- 북위 38° 57′
-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
- 김일성광장 주석단, 평양체육관 앞마당, 학교 서쪽 교재림구역

3) 칭호나 직무 등이 고유한 대상의 이름뒤에 오는 경우에는 붙여쓰며 앞에 오는 경우에는 띄어쓴다.

- 리수복영웅, 박철호실장선생, 최부상, 자강도일군
-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
-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○○○동지
- 2중3대혁명붉은기 ○○공장
- 2중영예의 붉은기 ○○고급중학교
- 잡지 《천리마》, 천하명승 금강산

[붙임] 고유한 대상의 이름뒤에 단계적으로 잇달린 직무이름이 오는 경우에는 띄어쓴다.

- 김순남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고대사연구실 실장

6항. 수사는 적는 방식에 따라 띄어쓴다.

1) 아라비아수자로만 적을 때에는 용근수인 경우 왼쪽으로 가면서, 소수인 경우 오른쪽으로 가면서 세자리마다 띄어쓴다.

- 326 528
- 3.141 592 65

[붙임] 수자가 단어와 결합하여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. 년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.

- 1211고지, 3000t프레스, 1116호농장
- 2021년, B. C. 3000년

2) 우리 글로만 적거나 아라비아수자와 우리 글을 섞어 적을 때에는 《백, 천, 만, 억, 조》의 단위로 띄어쓴다.

- 십구만 칠천 삼백 이십일, 삼억 사천 칠백 이십만 오천 이백
- 3조 2억 8천만원, 7만 8천 6백 20명

7항. 글을 읽고 쓰는데 편리하게 단어들의 뜻과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띄어쓰기를 적절히 할수 있다.

1) 품사가 다르거나 로가 붙은 단어들은 띄어쓰는것이 원칙이지만 읽고 쓰는데 편리하게 가깝게 어울리는 단어들은 붙여쓸수 있다.

- 어머니 우리 당 / 어머니 우리당
우리 말 공부 / 우리말 공부
우리 식 사회주의 / 우리식 사회주의
자기 단위 사업 / 자기단위 사업
- 새 기술혁신 창조투쟁의 불길 / 새기술혁신 창조투쟁의 불길
- 새 세대 청년대학생의 품모 / 새세대 청년대학생의 품모

- 력사의 새 시대 / 력사의 새시대
- 흰 눈 덮인 고향집 / 흰눈덮인 고향집
- 잘 먹는 사람과 못먹는 사람 / 잘먹는 사람과 못먹는 사람
- 당중앙 따라 천만리 / 당중앙따라 천만리

2) 단어들을 붙여써서 여러가지 뜻으로 리해될수 있는 경우에는 뜻이 통하게 띄여쓸수 있다.

- 중세언어연구
중세언어 연구(중세언어의 연구)
중세 언어연구(중세의 언어연구)
- 사리원, 평산일부
사리원, 평산일부(사리원전체와 평산의 일부)
사리원, 평산 일부(사리원일부와 평산일부)
- 김철부부장
김철부 부장(부장 김철부)
김철 부부장(부부장 김철)

3) 토없이 결합된 단위가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에는 읽기와 뜻단위로 띄여쓸수 있다.

-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
-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
-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준비사업